‘대행선 · 불교학’ 진흥, 올해도 이어진다

대행선연구원, 묘공학술상 등 공모사업 잇달아

올해로 2회 맞은 묘공학술상
대상 1천만원 최대 규모 자랑
‘묘공학술장학’통한 인재 양성
오는 3월 16일 계절발표회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한 대규모 학술공모사업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이평래)는 “대행선사의 선사상을 선양하고 한국불교학의 진흥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실시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한마음 주인공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의 법호인 ‘묘공’ 을 인용해 제정된 ‘묘공학술상’ 이다. 묘공학술상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생애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로 제2회를 맞이한 묘공학술상은 불교학계 최대 규모의 학술상으로,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 대상은 박사학위 소지자나 선학 · 불교학 전문가이며,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심사결과는 예비와 본 심사를 거쳐 내년 5월 6일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대상 수상 논문과 우수상 논문들은 자체 학술지인 〈한마음연구〉에 게재되며, 또한 학술상 응모 논문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탈락된 논문들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한마음연구〉에 수록된다.

전문연구자들을 위한 묘공학술상 외에도 신진연구자들을 위해서는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를 통해 전문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한마음연구〉에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게재비 400만원을 지급한다.

대행선과 불교학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화 된다.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묘공학술장학’ 이 그 중심에 있다. 묘공학술장학은 석 · 박사 학위과정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프로그램으로써 불교학관련 전 분야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또한 전문연구자들을 초청해 연구발표를 듣는 계절발표회는 매년 3 · 6 · 9 · 12월에 개최되며, 대행선과 불교학 관련 연구논문이 각 1편씩 발표된다.

올해 첫 계절발표회는 오는 3월 16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열린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황금연 경희대 교수가 ‘대행 선사의 수행관에 관한 고찰’ 을, 이상호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대행선 관법의 체계에 대한 고찰’ 을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와 서재영 동국대 박사, 혜원 스님(동국대)과 대행선연구원 연구실장 혜선 스님이 참여한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학술상과 묘공학술장학, 학술지 〈한마음연구〉의 발간 등 여러 가지 학술 진흥사업을 통해 불교관련 연구자 모두를 아우르는 학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술 연구를 통해 한마음선원의 3대 목표인 생활불교 · 현대불교 · 세계불교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학술 진흥사업을 통해 대행선의 정체성과 보편성을 확립하고 한마음사상의 학술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시에 한국명상수련원 들어선다

영주시–참불선원 MOU, 2020년 완공 목표로



경북 영주시에 1만평 규모의 불교명상수련원이 들어선다.

영주시(시장 장욱현)와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은 3월 4일 영주시청에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영주시가 추진 중인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연계한 한국명상수련원 건립 및 운영에 양측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주시는 한국명상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참불선원은 1만평 부지에 1000여 명이 동시 수행 가능한 명상수련관을 비롯해 운영본부동, 기타 부대시설을 건립한다. 특히 야외 명상캠프장과 개인 수행시설인 꾸띠 오두막, 명상둘레길 등을 조성해 수준 높은 명상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영주시가 조성하는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전통문화와 선비정신을 느낄 수 있는 전통문화관광단지를 표방한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473억 원을 들여 선비촌과 인접한 곳에 96만974㎡로 조성 중이다. 주요 시설은 한문화R&D지구, 전통숙박 및 전통문화지구로 구성되며 한복 · 한식 · 한옥 · 한글 · 한지 · 한음악 6대 테마를 중심으로 한다.

참불선원은 2016 세계명상대전, 2018 DMZ 세계평화 명상대전, 2015 · 2017 명상힐링캠프 등을 개최하며 국내 명상저변 확대에 앞장서왔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수려한 전통문화와 어우러진 힐링도시 영주에 명상대가인 각산 스님이 이끄는 한국명상수련원을 유치, 유형의 전통문화와 무형의 명상이 결합된 선비정신을 되새겨 영주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각산 스님과 장욱현 영주시장을 비롯해 최교일 국회의원, 이중호 영주시의회 의장, 정연만 前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비정규 노동자, 산재대상 아닌 ‘생명’

3대종교, 현대제철 故이재복 사망 규탄 기자회견

조계종 사노위 외 3월 6일
현대본사 앞에서 입장 발표
원청 책임강화, 직접고용 등
실질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현대제철은 생명을 집어삼켜 돈을 토해내는 죽음의 공장을 당장 멈춰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이주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는 3월 6일 서울 서초구 현대 본사 앞에서 ‘현대제철 故이재복 비정규노동자 죽음에 대한 3대종교 기자회견’ 을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사노위 위원 스님 4명을 비롯한 종교계 관계자, 태안화력 故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월 20일 50대 하청노동자 故이재복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현대제철이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몽 스님은 “고인이 일하던 당진제철소에서 13년 간 무려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만일 비정규직, 일용직, 하청 노동자라서 그저 산재처리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왔다면 대참회해야 한다”며 “힘 없는 노동자 죽음을 외면하고 방치한 현대그룹이 갚아야 할 과보가 수미산처럼 높다”고 발언했다.

이어 “정몽구, 정의선 현대 회장과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이윤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결단을 내리고 노동자 직접고용을 통해 죽음의 외주화를 멈출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스님은 당부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3대 종교계 등은 3월 6일 서울 현대 본사서 故이재복 노동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사측에 묻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조계종 사회노동위

앞서 정부는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故김용균 노동자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일명 ‘김용균법’ 은 2020년 1월 첫 시행된다.

사노위 등은 “정치권은 김용균법 통과로 하청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자화자찬했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하고 열악한 현장에 내몰려 있다”며 “3월 4일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곳에서 또 다시 컨베이어에 끼여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며 현대제철 및 정부 당국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대 종교계는 사측에 △유족과 노동자에 대한 사과 △사고 수습 및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당진제철소 가동 중단 및 진상조사 △책임자 엄중 처벌 △직접고용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강력조치 시행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사노위 등은 현대제철에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사측은 “할 말이 없다. 면담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원 기자

고려 유일 천수관음도 보물 지정

문화재청 지정…조선시대 목판 · 경전도



조선시대 경판과 경전, 고려시대 불화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잇달아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제진언집 목판, 고려 천수관음보살도를 포함한 고려 시대 불화, 조선 시대 목판과 경전 등 5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18세기 초 대표 궁중회화로 꼽혀 온 보물 제929호 기사계첩은 국보로 지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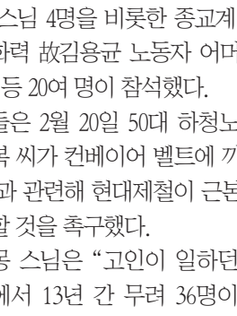
보물 제2014호 ‘제진언집 목판’ 은 1658년(효종 9년) 강원도 속초 신흥사에서 다시 새긴 ‘중간(重刊) 목판’ 으로, 불정심다라니경 · 제진언집목록 · 진언집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이 목판은 1569년(선조 2년)에 전라북도 완주 안심사(安心寺)에서 처음 판각됐으나, 안심사본 목판은 현재 전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흥사 소장 목판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에 해당한다.

보물 제1306-2호 〈묘법연화경〉은 조선 초기 명필가 성달생, 성개 형제가 부모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법화경〉을 정서(精書)한 판본을 바탕으로, 1405년(태종 5년) 전북 완주 안심사에서 승려 신문이 주관해 간행한 불경이다. 이 경전은 구결(口訣)이 전반적으로 표기되어 있고 한글로 토(吐)가 달려 조선 초기 국어사 연구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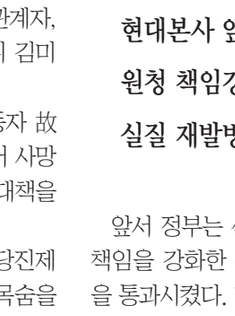
보물 제2015호 ‘고려 천수관음보살도’ 는 14세기경에 제작된 고려 시대 작품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의 자비력을 극대화한 불화이다.

보물 제2016호 〈불정심 관세음보살대다라니경〉은 관세음보살의 신비하고 영험한 힘을 빌려 이 경을 베끼거나 몸에 지니고, 독송하면 액운을 없앨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교한 경전이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유관리단체 등과 협력해 국보 · 보물 지정 문화재들이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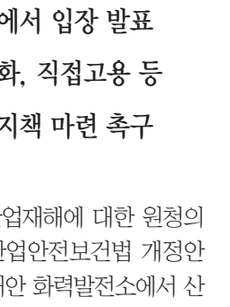
원행(遠行) 대종사 | 구도의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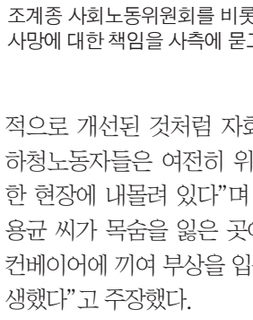
월정사 멍청이
원행(遠行) 지음
에세이스트사,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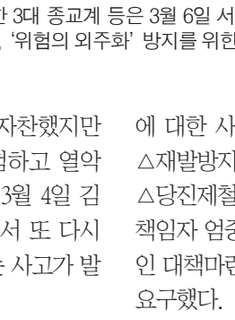
월정사 탑돌이
원행(遠行) 지음
에세이스트사,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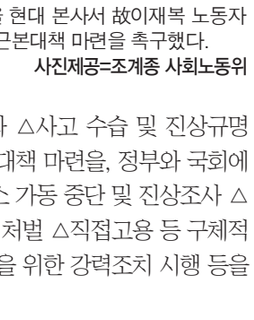
10.27불교법란
원행(遠行) 지음
에세이스트사,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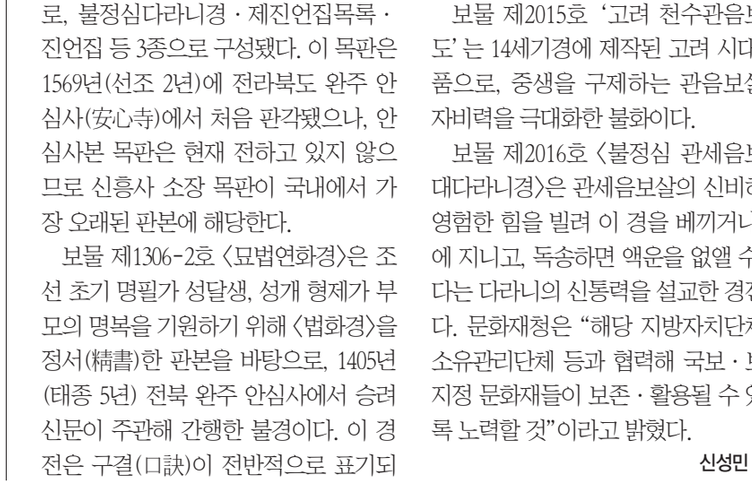
눈썹돌리는 소리
원행(遠行) 지음
에세이스트사, 15,000원



만화희찬스님 시봉이야기
원행(遠行) 지음
에세이스트사, 20,000원



탄허대선사시봉이야기
원행(遠行) 지음
에세이스트사, 20,000원



예전에 탄허 큰스님께서 “멍청아!”하시면서 휘호를 하나 써주셨다.

溪磵不能流得住
계간불능유득주 | 계곡의 물은 쉼없이 흐르고 흘러

竟歸大海作波濤
경귀대해작파도 | 마침내 바다로 돌아가 파도치리라

수행자는 물의 길을 가는 이다. 계곡과 하천과 강을 지나 바다에 이를 때까지 쉼없이 낮은 곳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물의 길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지표면의 물방울일 뿐. 그 물방울 더 작아지면 땅 속 깊이 더 낮은 데로 스미어 이윽고 백두산 천지처럼 높은 뫼 위의 신령한 정한수로 샘솟는다. 낮은 데로 흐르지도 못하고 더 낮은 곳으로 스미지도 못한다면 이미 수행자가 아니다.

오직 작아지고 낮아진 사람만이 번뇌를 끊고 대자대비를 품는다. 대자대비를 품지 않는 적멸이란 있을 수 없다. **- 원행 대종사 법문 중에서**

보시 중에 으뜸은 법보시라 합니다. 불사 중 가장 큰 불사는 법문을 널리 퍼뜨리고 오래 남겨주는 저술의 불사가 아닐는지요. 원행 대종사의 저서들은 탄허 대선사와 만화 희찬스님의 시봉이야기뿐 아니라 10 · 27불교법난 등 우리나라 근현대 100년간의 불교역사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큰 불사에 감사드리는 뜻에서 소개글 올립니다. **- 원행 대종사를 모시는 자광회 일동**

약관의 나이에 오대산 월정사로 출가해 한암스님, 탄허스님, 만화스님의 법통을 이어받아 수행정진하다. 불교종단 분규, 비구 · 대처 분규와 10 · 27 불교법난, 월정사 분규 사태 등으로 몸과 마음을 크게 다치다. 오대산의 큰 별, 탄허스님과 은사 만화스님이 열반하시자 49재를 모신 다음, 제2의 출가로 가야산 해인사로 가서 성철스님 문하에서 팔만대장경 장주 소임을 맡고 있던 어느 날, 꿈에 탄허스님의 벼락같은 현몽이 있고 그 현몽을 받들어 대전의 자광사로 가다. 자광사를 중창불사하고, 다시 월정사로 돌아와 부주지 소임을 겸하며 동해시 삼화사 주지 소임을 맡아 갔을 때, 팔과 하체가 훼손된 채로 약사전에 모셔진 약사철불 복원불사를 하려다가 고려시대 노사나철불임을 발견하고 삼화사 본존불로 모시다. 이후 원주 치악산 구룡사 주지로 부임해 원주불교대학을 개설하고, 경찰불자들을 위하여 원주경찰서 경승실을 새롭게 장엄하는 등 대중 포교에 힘쓰던 중, 하필이면 탄허스님 법어집을 출간하는 날 구룡사 대웅전이 전소되다. 구룡사 대웅전 중창 불사를 마치고 월정사 심검당으로 돌아와 수행승의 희비를 회고하다.
2019년 1월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오르다.